

11. 컴퓨터 섹스인가 나인가? Computer Sex or Me?



결혼한지 34년이 되었고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데이브와 지니는 서재에서 서로 돌아앉아 있었다. 지니는 이메일함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흥분되었다. 메시지 한 개가 그녀의 예전 남자친구로부터 왔고, 그녀는 그것을 클릭했다. 그녀가 나중에 쓰기를 “그 이메일을 연 것은 내 인생의 단 일초였으나, 그 일초가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버렸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 앉아있었다. 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단 2피트도 안 되는 바로 내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에 앉았고, 늦은 밤에 마지못해 컴퓨터를 그만두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전화도 서로 주고 받았다. 결국 지니와 마이크는 만날 시간을 정했다.

덴과 결혼한지 몇 달 만에 애슬리는 누군가 그녀의 컴퓨터를 선정적인 여자 사진들을 보는 데에 사용한 것을 알았다. 덴은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고, 방문한 사이트 기록들을 지우려고 했다. 그들은 그 때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애슬리는 끝까지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에 대한 꿈이 깨져버렸다. 그는 곧 자기가 거짓말 했다는 것을 실토했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며칠 후에 그녀는 그가 실제로 결혼한 후에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데이트 할 때에도 포르노 영상들을 자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슬리는 비참했다. 그녀는 “며칠 전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금방 그가 또 거짓말을 했다...”

데이브, 지니, 덴, 애슬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썼던 실제 인물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들을 공개하고 손해를 볼 용기를 내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이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겪는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인가?

성적인 유혹이나 음란한 생각은 수 천년 동안 있어왔던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었다(창 3장). 십계명에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였다(출 20장). 어느 날 밤에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다(삼하 11장). 예수님은 마음으로라도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다(마 5장).

생생한 이미지나 노골적인 문구들은 예술가나 작가들이 존재했던 이래로 계속 있어 왔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이런 이미지나 문구들을 누구에게나, 쉽게, 익명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쉽게 이용.** 많은 포르노 사이트에는 무료 샘플들이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도 분당 몇 센트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익명성.** ‘당신의 방안에 있는 컴퓨터는 그 누구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과 당신이 방문하는 사이트관리자를 제외하고는).
- **누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컴퓨터를 갖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은 (종종 무료로) 음식점에서나, 공항 등 여러 곳에서 가능하다.
- **언제나.** 인터넷은 매일 24시간 매주 7일 이용가능하다.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데이브, 지니, 댄, 애슐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런 일은 남녀 노소,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로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아직까지는 몇 퍼센트의 선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되지 않았다. 『크리스천 투데이(Christianity Today)』가 미국의 목회자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37%의 설문 참여자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이버 포르노로 인해 ‘현재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매년 ‘컴퓨팅과 선교’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컴퓨터와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교사들의 컴퓨터 안에서 포르노 영상을 본 증거를 발견하면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딜레마에 빠졌다.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다. 포르노 이용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전문가가 컴퓨터에서 찾은 것을 기반으로 보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 지도자 중 두 명이 선교와 인터넷에 헌신하는 『EMQ』라는 저널 전체의 핵심 이슈가 되었던 글을 썼다. 그들은 이 글이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랐다. 이전에는 이 문제들에 관하여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도 없었고, 저자들도 선교행정관으로부터 이 문제들에 관한 글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들 알기는 하나 선뜻 누군가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큰 문젯거리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꺼려하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었다.

나의 배우자는 매우 영적이라서 사이버포르노에 빠질 수 없지 않을까?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도박, 흡연, 음주, 약물 남용과 같은 여러 가지 중독들에 잘 빠지지 않는다. 사이버 포르노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영성과 사이버포르노와의 상관관계는 21 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결과들을 보면, 영성은 사이버포르노에 대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사실 더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취약할 수 있다. 인디안 웨슬리안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가 2006년 『심리학과 신학』이라는 저널에서 보여주기를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확실히 성에 덜 중독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이버포르노에 빠지기 쉬운 것을 보여주었다. 종교적인 활동에 더 관여하고, 믿음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인터넷 포르노에 접속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거기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더 사이버포르노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것이기에 왜 그런지 이유는 아직 잘 모른다. 단지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예로 사이버포르노는 혼외 성관계보다는 덜 꺼려지고, 더 허용되며, 개인적이고, 합리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

배반당한 배우자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한다. 애슐리가 말하기를 “내가 못나게 느껴지고, 불쾌하고,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감정들을 열거하자면.

- 불신, 쇼크, 경악

- 화, 분노, 격노
- 상처, 공포, 소외
- 비통, 배반감
- 더러움, 더럽혀짐
- 공포, 외로움
- 분개, 쓰라림
- 훼손감, 멍함
- 때묻은느낌, 불결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감정들은 강하고, 변덕스럽고, 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때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나쁜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만일 나의 배우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당신이 먼저 (이미 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말 것.** 배우자가 어떻게 말하든지, 그 누구도 배우자를 컴퓨터 섹스로부터 떼어놓을 만큼 섹시하거나 매력적일 수는 없다.
- **같이 참여하지 말 것.** 그림이나 영상을 본다든지, 누군가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누군가와 스카이프를 접속하는 것(웹캠으로 또는 웹캠 없이)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 **배우자의 안전을 감독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회해서 컴퓨터 섹스를 할 방법을 찾아 낼 것이다.
- **이 문제가 죄 또는 병이라고 판단하지 말 것.** 이 둘 다이며 - 이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적, 영적, 신체적, 심리적인 것과 함께 여러 가지가 더해진 문제일 수 있다. 신체의 신경화학적 인 작용에 기반한 죄성이 드러나는 집착인 것이다.

물론 당신 배우자의 감정적, 사회적, 성적, 영적인 욕구와 같은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다. 당신은 배우자가 반복되는 죄, 수치, 침묵 등과 싸우는 과정에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다.

- **책임.** 당신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다른 어떤 이도 아닌 바로 컴퓨터 섹스에 걸려든 사람, 즉 당신의 배우자가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 **자백.** 당신의 배우자는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자백해야 한다(여러 명에게 자백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 **회개.** 회개는 후회나 비통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컴퓨터 섹스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 **매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라.** 모임에서 문제와의 싸움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 된다.
- **필요하면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찾아보아라.** 당신의 배우자는(또는 당신은) 그룹에서 얻고 있는 도움에 추가적으로 심리학자나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은 배우자를 돕기 위한 것이지, 당신이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책임을 지거나, 하나님에게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또 이로 인해 컴퓨터 섹스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대개는 잘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강요당할 경우에는 더욱 힘들다.

책임 그룹(accountability groups 역자주: 자신드러이 삶과 생각을 나누고 체크해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는 비밀을 보장하는 안전한 그룹)에 속해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의 경우에도 그렇지 못한 이들과 똑같이 이
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거나 반복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책임지고 있는 파트너나 그룹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책임 관계가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
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